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변화 양상 및 영향 요인 분석: 부산교육종단연구(BELS)를 중심으로*

추지윤¹·이은지²·장선희³

¹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²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³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An Analysis on the Changes and Influential Factors in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Using Bus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Chu, Jiyun¹ · Lee, Eunji² · Jang, Seonhee³

¹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3}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in sense of community of adolescents in Busan an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m. **Method:** Among the data from the 1st to 5th years of the BELS, 2,25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used to analyze the potential growth model. **Results:** First, by unconditionally analyzing the model, a piecewise growth model was estimated as the most suitable model by applying the no-growth, linear, quadratic, and piecewise growth models, respectively. As of the time of the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the sense of community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in middle school but gradually decreased in high school. On one hand, the variance of the rate of change in the initial period, middle and high school periods was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firming that individual differences in sense of community existed. Second, a conditional model was applie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 in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Compared to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and the higher level of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higher the initial status of sense of community. In addition, the closer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the higher the rate of increase in sense of community in middle school, and the better the friendship and teacher relationship, the higher the initial status of sense of community. **Conclusion:** As a key competency of the future society, efforts are needed to foster youth's sense of community, and various educational experiences and customized strategies are needed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f youth.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systematic support measure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were suggested.

Key words: BELS, a sense of community, latent growth model, piecewise growth model

* 본 연구는 2021년 제3회 부산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Lee, Eunji.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e-mail: eeuni12@gmail.com

I.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다양한 지식들의 융·복합을 강조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학교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조하고 협동과 공동체의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인간의 존엄과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류방란 외, 2018).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교육부는 지능정보사회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필수 역량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 역량은 지역사회·국가·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말하며 OECD에서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팽배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가 확산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소양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례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회 구성원간의 유대감과 공동체의식의 필요성이 더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가족, 학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장하기에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기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윤수경, 이윤희, 임소현, 김은영, 2018).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서·행동 문제, 학교폭력, 부적응 등과 같은 문제들은 개별화된 사회에서 상호작용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의 가치를 답습하지 않도록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장희선, 이재덕, 2018). 청소년들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의식을 주제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이해하고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이 적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공동체의식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전영호, 2015), 학생 자료학교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다층분석을 시도한 연구(윤수경 외, 2018),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특정한 요인의 설명력을 규명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연구(이기혜, 방수민, 이은혜, 2017) 등이 존재한다. 청소년 시기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변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종단적 관점에서 중·고등학생의 공동체의

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를 다룬 연구도 이루어졌으나, 이들 연구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방법을 활용하여 공동체의식과 진로 정체감(김현주, 박희서, 2019) 또는 사회적 관계성(박수원, 김셋별, 2016)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선형적인 변화 양상이 주로 연구되어 학교급에 따라 구분되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안소영, 신현우, 이청아, 홍세희, 2020). 기존의 선행연구는 중·고등학교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공동체의식의 변화가 어떠한 영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중·고등학생의 학교급에 따른 공동체의식 변화를 분석하고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급변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하여 종단적 시간 흐름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공동체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공동체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가?

둘째, 청소년 공동체의식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공동체의식의 개념

공동체의식이란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적인 연대를 인식하는 것(Sarason, 1974)으로, 구성원 간의 소속감 및 결속력을 인식하고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McMillan & Chavis, 1986).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시기의 공동체의식은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조직,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기반이 되기에 주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간 이루어진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그 의미를 다양한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희선, 이재덕, 2018; 윤수경 외, 2018). 그 의미를 헤아려보면, 공동체의식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대감의 개념을 공

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윤수경 외, 2018).

박재숙(2010)은 공동체의식을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소속감, 상호의존성, 상호 헌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고, 장희선과 이재덕(2018)은 공동체의식을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그 집단, 조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유대감과 결속력을 다지는 심리적인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일부 연구자의 경우에는 공동체의식을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미로 개념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을 개인들의 집합의식 차원을 넘어서 실천적 측면에서 정의한 박가나(2009)는 공동체의식의 개념에 대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다하려는 실천적 의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공동체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규정하며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강조하였는데,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 역량을 갖춘 청소년은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교육부, 2015).

선행연구들에서 정의한 공동체의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조직 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 공동체의식은 매우 중요하며, 개인이 인식하는 심리·정서적 소속감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실천·행동적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구성원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McMillan & Chavis, 1986; 아영아, 김진영, 2018 재인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II-1〉 공동체의식의 개념

연구자(연도)	공동체의식의 개념
박가나(2009)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 소속감에 따른 집합의식을 가리킴과 동시에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다하려는 실천적 의식
박재숙(2010)	어떤 집단이나 조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소속감과 상호의존성, 상호헌신에 대한 인식
장희선, 이재덕(2018)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에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해당 집단 내 구성원으로서 유대감 및 결속력을 다지는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
McMillan & Chavis(1986)	구성원의 소속감, 영향의식(Influence), 욕구의 충족감, 정서적 유대감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지역성과 관계성의 특성을 강조
Sarason(1974)	사회구성원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망의 인식

2.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내적 특성 외에도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혹은 변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박혜숙, 2019; 이해영, 1997). 국내 연구자

들은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김미림, 유예림, 황은희, 2020; 윤수경 외, 2018)와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이희정, 2016; 장희선, 이재덕, 2018)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왔다. 최근에는 머신러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교육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됨에 따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데이터 마이닝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미림 외, 2020).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여러 변화 형태를 보고하고 있다. 박현정 외(2015)에서는 선형 성장모형을 기본으로 공동체의식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증가한다고 하였고 장희선과 이재덕(2018)에서도 선형 성장모형에서 공동체의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정민과 정혜원(2017)의 연구는 잠재성장모형 중 자유모수 변화모형을 기본으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 성장폭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소영 외(2020)에서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시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초등학교 시기에는 감소하는 형태, 중학교 시기에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시간의 변화 따라 여러 변화 궤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의식의 발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영향 요인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 가정, 학교 변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학생 개인 변인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에는 성별, 자아존중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교우관계, 학업 성과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공동체의식과 학생의 성별 간 유의미한 영향을 밝힌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훈, 2015; 김혜진, 2014; 박현정 외, 2015; 박혜숙, 2019). 또한 청소년 시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된다(강가영, 장유미, 2013; 박혜숙, 2019; 최정현, 2019). 최정현(2019)은 청소년의 성장에 따라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시기 공동체의식의 긍정적인 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공동체의식은 학생 개인적인 특성 외에도 청소년 시기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과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보고되고 있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 환경보존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전명숙, 박선녀, 2016; 한은영, 김미강, 2013). 특히 강혜진과 김정섭(2012)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한 형태로써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이 됨을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학생의 학업 성과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데, 이기혜 외(2017)는 학업성취 수준이 공동체의식 발달에 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밝혔으며 이는 고등학생 집단보다 중학생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림 외(2020)는 학업적 자아개념이 공동체의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발달에 인지적 영역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변인으로는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관계 등이 보고되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학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정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공동체의식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준 외, 2010; 박현정 외, 2015; 윤수경 외, 2018). 또한 가정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그리고 부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김위정, 2012; 유난숙, 2015; 윤수경 외, 2018; 이기혜 외, 2017). 전현정과 정혜원(2017)은 초등학교급에서는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맺을수록 공동체의식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학교급 이상에서는 부모의 지원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여 공동체의식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 청소년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발달 시기에 따라 가정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학교 수준 영향 요인으로는 학교 특성을 나타내는 학교 설립 유형과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 교사 관계 변인이 포함된다. 먼저 학교 특성 변인으로 학교 소재지, 설립 유형, 학교 풍토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상희, 2005; 윤수경 외, 2018; 장희선, 이재덕, 2018). 또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나 친구와의 민주적인 경험은 청소년의 사회적 기능, 공동체의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인으로 설명된다(강가영, 2014; 김원태, 2001; 송연주 외, 2016; Brechwald & Prinstein, 2011). 강가영(2014)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의식 간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해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좋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관계 맺음은 학생의 공동체의식 발달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박현정 외, 2015; 윤수경 외, 2018). 즉, 교사가 학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수록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선행연구 바탕으로 할 때,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교급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 가정, 학교 변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변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교육종단연구(Bus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이하 BELS)의 중학교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조사는 2016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산 지역의 교육정책과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2016년 중학교 1학년(1차)에서 2020년 고등학교 2학년(5차)까지의 종단자료에서 공동체의식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문항에 결측치를 제외하고 2,258명으로 이중 남학생은 1,228명, 여학생은 1,030명으로 나타났다.

2. 측정변인

1)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인은 BELS 중학교 패널 1차~5차년도에서 공통적으로 측정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우리 반의 일원이라고 느낀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반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낀다’, ‘우리 반에서 만족감과 기쁨을 느낀다’, ‘우리 반 친구들에게 친밀감과 정을 느낀다’의 4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기별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는 .862~.907 분포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종속변인 주요 내용

구분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공동체의식	1차 다음 4문항에 대한 5점 척도 평균값	4.23	.774	.862
	2차 · 우리 반의 일원이라고 느낀다.	4.26	.767	.878
	3차 ·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반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낀다.	4.22	.797	.902
	4차 · 우리 반에서 만족감과 기쁨을 느낀다.	4.28	.775	.898
	5차 · 우리 반 친구들에게 친밀감과 정을 느낀다.	4.16	.849	.907

2)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독립변인은 개인, 가정, 학교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인 변인에서는 성별, 자아존중감, 동아리 활동여부, 학업성취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가정 변인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부모와의 관계를 투입하였고 학교 변인에서는 설립유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유무, 교우 관계, 교사 관계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인은 공동체 의식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BELS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II-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 독립변인에 대한 설명

구분	변수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개인 변인	성별	남=0, 여=1	0.46	.498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묻는 3문항의 평균값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4.22	.810
	동아리 활동여부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없다=0, 있다=1)	0.93	.256
	학업성취도	국어, 수학, 영어 원점수의 평균값	57.62	19.325
가정 변인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의 자연로그값	6.03	.589
	부모자녀 관계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묻는 2문항의 평균값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4.25	.901
	설립유형	사립=0, 국공립=1	0.86	.348
학교 변인	봉사활동 프로그램	교내에서 봉사활동 연계프로그램 운영 여부 (운영 안함=0, 운영함=1)	0.85	.361
	교우 관계	학생이 지각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묻는 5문항의 평균값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4.36	.727
	교사 관계	학생이 지각하는 학교에서 교사들과의 관계를 묻는 3문항의 평균값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4.13	.819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변화 양상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에서 세 시점 이상 측정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모형으로(김보영, 이지혜, 이수정, 김혜자, 2015) 변인의 잠재적인 성장요인을 추정하여 변화 양상을 함수를 통해 정의하고 변화 함수와 시간에 따른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모형을 의미한다(Duncan & Duncan, 2004; 정윤희, 봉초운, 홍세희, 2018). 즉, 잠재성장모형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떤 수학적 함수가 개인의 성장궤적을 적절하게 나타내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Geiser, 2011).

잠재성장모형은 크게 두 가지 절차를 통해 분석된다. 먼저, 무조건 잠재성장모형(Unconditional LGM) 분석은 예측변수 없이 평균과 분산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의 변화 형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무변화, 일차함수, 이차함수, 분할함수 모형을 각각 검증하고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원정은, 정혜원, 2019). 다음으로는 조건 잠재성장모형(Conditional LGM) 분석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투입하여 개인의 변화 양상과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수영, 2016; 정윤희 외, 2018; 원정은, 정혜원, 2019).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성장궤적을 검증하고자 무조건 모형분석에서 일차함수, 이차함수, 분할함수 모형을 각각 검토하여 변화 궤적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AIC, CFI, TLI, RMSEA 등 지수를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이 중에서 CFI와 TLI는 증분적합도 지수라고 불리며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엄격하게는 .95의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정윤희 외, 2018). 또한, RMSEA는 일반적으로 .05이하일 때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06이하의 기준도 적용이 가능하다(정윤희 외, 2018). 이처럼 무조건 모형분석에서 연구에 적합한 성장모형을 찾은 후에는 독립변인을 투입하여 시간에 변화에 따른 성장궤적과 변화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Mplus 7.0과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인인 공동체 의식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 <표 IV-1>와 같다. 1차~5차년도 자료에서 공동체 의식의 평균은 4차년도에 4.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차년도에는 4.16점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었다. 즉, 공동체 의식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승과 감소를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는데 왜도와 첨도 모두 0에 가까우면 정규분포를 가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왜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 10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김수영, 2016). 본 연구의 공동체 의식의 1차~5차년도에서 왜도는 -1.125~-0.984, 첨

도는 .836~1.242의 분포로 나타나 검토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1> 종속변인(공동체의식) 기술통계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차년도	1	5	4.23	.774	-1.078	1.074
2차년도	1	5	4.26	.767	-1.065	1.080
3차년도	1	5	4.22	.797	-.984	.836
4차년도	1	5	4.28	.775	-1.125	1.242
5차년도	1	5	4.16	.849	-1.012	.971

다음으로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IV-2>와 같다. 공동체의식은 1차~5차년도의 모든 시점에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분석에 투입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분포는 -.113~.614로 나타났다.

<표 IV-2> 주요 변인 상관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485**	1													
3	.435**	.539**	1												
4	.355**	.426**	.512**	1											
5	.310**	.384**	.422**	.527**	1										
6	-.101*	-.069*	-.113**	-.091*	-.075*	1									
7	.614**	.481**	.383**	.323**	.289**	-.074*	1								
8	-.009	.001	.037	.005	-.006	-.044*	-.015	1							
9	.171**	.147**	.082**	.114**	.131**	.082**	.171**	-.049*	1						
10	.083**	.099**	.048*	.084**	.075**	-.052*	.068**	-.054*	.301**	1					
11	.332**	.308**	.255**	.229**	.210**	-.038	.403**	.003	.150**	.065**	1				
12	-.008	-.005	.005	-.004	-.011	.218**	.006	.082**	.045*	-.004	.004	1			
13	-.054*	-.046*	-.032	-.026	-.013	.191**	-.034	-.055**	-.021	-.002	-.029	.256**	1		
14	.610**	.429**	.373**	.337**	.302**	.002	.475**	-.010	.175**	.079**	.394**	.009	-.039	1	
15	.417**	.303**	.266**	.206**	.213**	-.090*	.377**	-.044*	.186**	.067**	.393**	-.007	-.072**	.478**	1

* $p < .05$, ** $p < .01$

주: 1~5=공동체의식 1차~5차년도, 6=성별, 7=자아존중감, 8=동아리활동 여부, 9=학업성취도, 10=월평균 가구소득, 11=부모와의 관계, 12=설립유형, 13=봉사활동 프로그램 유무, 14=교우 관계, 15=교사 관계

2. 공동체의식의 성장궤적

공동체의식의 성장궤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무조건 모형에서 무변화 모형, 일차함수 모형, 이차함수 모형, 분할함수 모형을 각각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먼저, 무변화 모형($\chi^2=275.357$, $df=13$)에 비해 일차함수 모형($\chi^2=112.436$, $df=10$)이 CFI와 TLI가 .95를 넘고 RMSEA 값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적합하였다. 그러나 이어서 이차함수와 분할함수 모형을 투입한 결과 각각 이차함수 모형($\chi^2=56.163$, $df=6$)은 CFI가 .984, TLI가 .974로 나타났고 분할함수 모형($\chi^2=57.109$, $df=6$)은 CFI가 .984, TLI가 .973으로 기준값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두 모형 모두 RMSEA는 .061, SRMR은 .053으로 나타나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조건 모형 검정 결과로 이차함수 모형과 분할함수 모형이 적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할함수 성장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여 성장 궤적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질적으로 다른 기간이나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분할함수를 적용하여 변화궤적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 등으로 이전과 다른 변화궤적을 갖는 경우에 분석이 용이하고 각 시기별로 선형 해석이 가능하며 변화패턴을 이해하기 쉽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손수경, 이현정, 홍세희, 2017).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는 중학교 1학년을 첫 시점으로 하여 고등학교 2학년까지 5개년의 응답값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변화하는 시점을 분할 시점으로 적용하였다.

<표 IV-3> 공동체의식의 성장모형 추정

구분	χ^2	df	AIC	CFI	TLI	RMSEA	SRMR
무변화	275.357***	13	23844.934	.918	.937	.095	.092
일차함수	112.436***	10	23688.012	.968	.968	.067	.053
이차함수	56.163***	6	23639.740	.984	.974	.061	.053
분할함수	57.109***	6	23640.686	.984	.973	.061	.053

* $p<.05$, ** $p<.01$, *** $p<.001$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분할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1기 변화율(중학교 시기), 2기 변화율(고등학교 시기)의 추정치는 다음 <표 IV-4>와 같다. 먼저,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1기 변화율의 경우 평균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분산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또한, 2기 변화율의 경우에는 평균과 분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교 초기의 공동체의식 평균 점수는 4.240점이고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가 고등학교 시기에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초기치, 1기 및 2기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공동체의식의 개인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독립변인을 투입한 조건모형으로 개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원정은, 정혜원, 2019).

〈표 IV-4〉 공동체의식의 초기값 및 변화율 추정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초기치	평균	4.240***	0.016
	분산	0.313***	0.021
1기 변화율	평균	0.006	0.009
	분산	0.040***	0.008
2기 변화율	평균	-0.033***	0.009
	분산	0.062***	0.008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공분산을 통해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공동체의식의 초기치와 1기 변화율의 공분산은 -.225이고 표준오차는 .072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첫 시점에서 공동체의식 초기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년이 증가하면서 공동체의식의 변화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의식의 초기치가 이미 높기 때문에 향상폭이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손수경 외, 2017). 공동체의식의 초기치와 2기 변화율의 공분산은 -.235이고 표준오차는 .056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는 초기치가 높을수록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는 공동체의식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초기치가 높기 때문에 감소폭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동체의식의 1기 변화율과 2기 변화율 사이의 공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두 시점의 변화율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5〉 공동체의식 초기값 및 변화율의 공분산

변수	경로계수	공분산	표준오차
공동체 의식	초기치 → 1기 변화율	-.225**	.072
	1기 변화율 → 2기 변화율	-.162	.090
	초기치 → 2기 변화율	-.235***	.056

* $p < .05$, ** $p < .01$, *** $p < .001$

3. 청소년 공동체의식 변화의 영향 요인 분석

앞선 분석에서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무조건 모형에서 분할함수 잠재 성장모형을 연구를 위한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여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조건모형 분석으로 개인, 가정, 학교 변인으로 구분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공동체의식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검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6>과 같다.

먼저, 개인 변인에서 성별은 초기치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경우에 초기치가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한편, 1기 및 2기 변화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초기치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기 변화율에도 부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 중학교 시기의 공동체의식 증가율은 낮게 예측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학업성취도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초기 수준이 높고 2기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고등학교시기에 학업성취도가 높게 증가할수록 공동체의식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 변인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공동체의식의 초기치와 2기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1기 변화율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중학교 시기의 공동체의식 증가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변인에서는 교우 및 교사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교우 관계는 공동체 의식의 초기치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1기 변화율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우 관계가 좋을수록 공동체의식 초기치가 높게 나타나고 중학교 시기의 공동체의식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우 관계가 좋을수록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공동체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교사 관계는 공동체의식의 초기치에서만 통계적으로 정적인 유의성이 나타났는데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공동체 의식의 초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IV-6〉공동체의식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변인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표준편차	
개인 변인	성별 (여=1)	공동체 의식 초기치	-.087***	.023	-.073	
		공동체의식 1기 변화율	-.021	.017	-.044	
		공동체의식 2기 변화율	.009	.019	.018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 초기치	.364***	.016	.493	
		공동체의식 1기 변화율	-.078***	.012	-.263	
		공동체의식 2기 변화율	-.025	.013	-.081	
	동아리 활동여부	공동체 의식 초기치	-.001	.042	.000	
		공동체의식 1기 변화율	.053	.033	.057	
		공동체의식 2기 변화율	-.055	.036	-.056	
	학업성취도	공동체 의식 초기치	.001*	.001	.040	
		공동체의식 1기 변화율	-.001	.000	-.052	
		공동체의식 2기 변화율	.001*	.001	.100	
	가정 변인	월평균 가구소득	공동체 의식 초기치	.024	.019	.024
			공동체의식 1기 변화율	.002	.015	.004
			공동체의식 2기 변화율	.007	.016	.017
부모와의 관계		공동체 의식 초기치	-.001	.014	-.002	
		공동체의식 1기 변화율	.031**	.011	.118	
		공동체의식 2기 변화율	-.007	.012	-.026	
학교 변인	설립유형 (국공립=1)	공동체 의식 초기치	.000	.033	.000	
		공동체의식 1기 변화율	.018	.025	.027	
		공동체의식 2기 변화율	-.026	.027	-.036	
	봉사활동 프로그램 유무	공동체 의식 초기치	-.021	.031	-.013	
		공동체의식 1기 변화율	.010	.024	.016	
		공동체의식 2기 변화율	.020	.026	.029	
	교우 관계	공동체 의식 초기치	.392***	.018	.477	
		공동체의식 1기 변화율	-.083***	.014	-.250	
		공동체의식 2기 변화율	.004	.015	-.010	
교사 관계	공동체 의식 초기치	.070***	.016	.096		
	공동체의식 1기 변화율	-.020	.012	-.068		
	공동체의식 2기 변화율	-.007	.013	-.022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BELS의 중학생 패널 1~5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중학교 시기에는 거의 변화하지 않다가 고등학교 시기에 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생 개인 간 공동체의식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보고한 연구(박현정 외, 2015; 이정민, 정혜원, 2017; 이희정, 2016; 장희선, 이재덕, 2018)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생애주기를 고려했을 때 초기 청소년기부터 청년이 되는 시기까지는 공동체의식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고 한 연구(Pretty et al., 1996)와 고등학교 시기에 공동체 의식이 감소함을 보고한 연구(김재우, 김동진, 2021)들과는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 비해 고등학 교 시기는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며, 입시 경쟁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시기로 청소년 들이 공동체의식 등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에 대한 관심과 비인지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으며, 고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들이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협동심, 배려, 자립심 등을 함양시키기 위한 원래의 목적 과는 상이하게 개개인의 대학입시에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이정민, 정혜 원, 2017; 최창욱, 문호영, 김정주, 2016)에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청 소년의 공동체의식은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꼽히고 있으며(류방란 외, 2018)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 비행 등의 청소년 문제행동이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장선희, 정제영, 2019; 2021)에서도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학교 시 기와 고등학교 시기동안의 청소년 공동체의식의 발달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중학교 시기 와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 발달 특성 및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개발·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및 학급에서의 임원 경험과 같은 민주적인 경험(김재우, 김동진, 2021),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공동체의식을 증진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바(구미령, 유진은, 2021),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개입 방 안으로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은 공동체의식 수준의 초기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은 수준임을 보고한 다 수의 연구(김성훈, 2015; 김혜진, 2014; 박현정 외, 2015; 박혜숙, 2019) 결과와는 상반되지만, 여 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연구(강현주, 신인순, 2015; 박영, 허원구, 2017)의 결과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성별의 관계는 청소년 의 개인 발달이나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는 바(박영, 허원구, 2017),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수준의 초기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학교

시기의 공동체의식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은 공동체의식 수준과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연구(최정현, 2019)와 청소년 시기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강가영, 장유미, 2013; 박혜숙, 2019) 등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갖게 하는 청소년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보고되어 왔다(박재숙, 2010). 중학교 1학년 때의 자아존중감이 중학교 시기동안의 공동체의식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기 위한 심리·정서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학업성취도는 공동체의식 수준의 초기치와 고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청소년의 고등학교 시기 공동체의식의 증가율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청소년 시기의 학업성취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학업성취 수준이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연구(이기혜 외, 2017)와 공동체의식에 학교에 가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에 즐거운 태도로 임하는 정도인 학업적 자아개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한 연구(김미림 외, 2020)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기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업에 임하는 태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연구 결과에 직접적으로 터한 논의가 아니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이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중학교 시기 공동체의식 수준의 증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요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와의 관계 변수를 투입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김태준 외, 2010; 박현정 외, 2015; 윤수경 외, 2018)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김위정, 2012; 유난숙, 2015; 윤수경 외, 2018; 이기혜 외, 2017)의 결과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고등학교 시기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학교 시기의 공동체 의식의 증가율을 높이는 차별적인 결과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전현정, 정혜원, 2017).

여섯째, 청소년의 원만한 교우 관계는 공동체의식의 초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교 시기의 공동체의식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김원태, 2001; 송연주 외, 2016),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이 공동

체의식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연구(강가영, 2014; 구미령, 유진은, 2021; 김재우, 김동진, 2021; 박영, 허원구, 201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및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초기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와 학생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관계 맺음이 학생의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구미령, 유진은, 2021; 김재우, 김동진, 2021; 박영, 허원구, 2017; 박현정 외, 2015; 윤수경 외, 2018).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이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공동체의식 향상에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역량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관계 형성을 위해 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거나 학생 생활 지도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구미령, 유진은, 2021).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청소년 개인의 내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교육적 시사점은 부산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측정 도구가 아닌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영향 요인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청소년기에 속한 중·고등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전체 범주를 포괄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 변수를 구성하는 데 활용한 문항의 내용이 ‘우리 반의 일원이라고 느낀다.’, ‘우리 반 친구들에게 친밀감과 정을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급 차원에서의 공동체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의 수와 내용이 보다 풍부하게 구성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강가영 (2014). 학교생활적응이 아동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4(28), 81-110.
- 강현주, 신인순 (2015).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9(9), 25-48.
- 강혜진, 김정섭(2012). 학습동아리 활동이 대학생들의 공동체의식과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 평생교육학연구, 18(1), 1-22.
- 교육부 (2015). 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구미령, 유진은 (2021).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이용한 아동·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의 변화와 영향요인 탐색. 교육학연구, 59(2), 361-386.
- 김미림, 유예림, 황은희 (2020).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영향요인 분석: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31(2), 205-233.
- 김보영, 이지혜, 이수정, 김혜자 (2015). 청소년의 비공식낙인과 공격성의 종단적 관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1), 277-295.
- 김성훈 (2015). 청소년의 봉사활동과 공동체의식-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 한국청소년연구, 77, 235-259.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정: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 김원태 (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3(1), 49-88.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재우, 김동진 (2021). 민주적 학교문화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의 활용. 교육문화연구, 27(4), 5-27.
-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장혜승, 반재천, 조영하 (2010). 한국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주, 박희서 (2019).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종단연구-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활용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3), 1079-1088.
- 김혜진 (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유형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8, 195-214.
- 류방란, 김경애, 이상은, 한효정, 이윤미, 이종태, 최항섭, 이지미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연구보고 RR 2018-01.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수원, 김셋별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5-32.
- 박영, 허원구 (2017).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발달궤적 및 예측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8), 131-156.
- 박재숙 (2010). 한국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7(4), 157-182.
- 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4), 105-127.
- 박혜숙 (2019). 공동체의식 변화양상과 개인, 가정, 학교특성이 아동·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5(1), 555-576.
- 손상희 (2005). 초등학교 통합학급의 학급풍토와 공동체 의식 특성. *특수아동연구*, 7(2), 1-26.
- 손수경, 이현정, 홍세희 (2017).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3), 57-88.
-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2), 207-231.
- 아영아, 김진영 (2018).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종단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6(1), 47-66.
- 안소영, 신현우, 이청아, 홍세희 (2020). 분할함수 성장모형으로 살펴본 초기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의 발달 및 시점별 학교생활 적응 효과. *조사연구*, 21(2), 89-116.
- 원정은, 정혜원 (2019).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0(1), 5-37.
- 유난숙 (2015). 중산층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방식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3), 319-329.
- 윤수경, 이윤희, 임소현, 김은영 (2018).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2), 353-374.
- 이기혜, 방수민, 이은혜 (2017).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학업성취수준 및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7(4), 105-135.
- 이정민, 정혜원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변화와 체험활동의 시간효과. *중등교육연구*, 65(3), 573-599.
- 이혜영 (1997). 공동체적 사회연대 구축을 위한 품성교육의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3(2), 113-134.
- 이희정 (2016). 도시청소년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 궤적과 설명 변인 탐색. *도시인문학연구*, 8(2), 97-125.
- 장선희, 정제영 (2019). 영과잉 음이향 회귀모형을 활용한 중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분석. *교육문화연구*, 25(6), 595-618.
- 장선희, 정재영 (2021).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7(4), 359-379.
- 장희선, 이재덕 (2018).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변화에 미치는 교사 성취 압력의 영향력. *교육문화연구*, 24(5), 399-424.
- 전영호 (2015). 녹색식생활의 건강가치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서비스연구*, 12(2), 125-138.
- 전명숙, 박선녀 (2016).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228-237.
- 전현정, 정혜원 (2017). 순차적 경로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도의 잠재분석. *학습자중심교육*, 17, 335-360.
- 정윤희, 봉초운, 홍세희 (201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5(1), 181-210.
- 최정현 (201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종단적 융합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패털 조사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9(12), 62-79.
- 한은영, 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2, 95-124.
- 최창욱, 문호영, 김정주 (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rechwald, W. A., & Prinstein, M. J. (2011). A decade of advances in understand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1), 166 - 179.
- Duncan, T. E., & Duncan, S. C. (2004). An Introduction to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Behavior Therapy*, 35(2), 333-363.
- Geiser, C. (2011). *Data analysis with Mplus*. 김진현, 한지나 공역 (2019). Mplus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서울: 학지사.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Pretty, G. M. H., Conroy, C., Dugay, J., Fowler, K., & Williams, D. (1996).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evance to adolescents of all age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4(4), 365-379.
- Sarason, S. B. (1974). *The Psychology sense of community: Prospect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Jissey-Bass.

국문초록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변화 양상 및 영향 요인 분석: 부산교육종단연구(BELS)를 중심으로

추지윤¹·이은지²·장선희³

¹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²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³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산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부산교육종단연구(BELS) 1차~5차년도 자료 중 중고등학생 2,258명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무조건 모형 분석으로 무변화, 일차함수, 이차함수, 분할함수 모형을 각각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분할함수 모형을 추정하였다. 중학교 3학년 시점을 기준으로 공동체의식은 중학교 시기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다가 고등학교 시기에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기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기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공동체의식의 개인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조건 모형을 적용하였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인 경우와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의 초기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중학교 시기 공동체의식의 증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우 및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공동체의식 초기치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의 및 결론:**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과 교육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경험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부산교육종단연구, 공동체의식, 잠재성장 모형, 분할함수 성장모형

투고일: 2021. 10. 31. / 심사일: 2021. 11. 14. / 심사완료일: 2021. 12. 20.